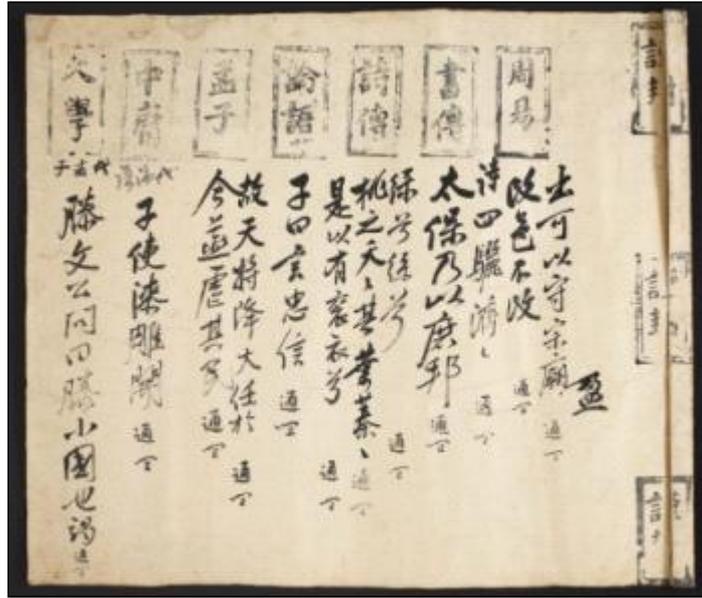


(붙임)

안 내 흥 보 물



10월 큐레이터 추천 유물 <강서 시권>

큐레이터 추천 알실 유물
CURATOR'S CHOICE

구술 번집 시험지, 강서 시권
讀書 試卷

과거시험 과정 중 최종 구술시험의 문제와 결과를 보여주는 시험지다. 구술시험 중에서도 유일 유교 경전 7가지를 평가한 형식임으로써 중요하고 있다. 현재를 통틀어 책 글씨가 희박하거나 글씨도 평가했던 흔적이 있어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새로운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2F 조선의 국왕실

구술 번집 시험지, 강서 시권 讀書 試卷
Oral Examination Paper

조선시대 | 종이재질 | 가로: 90.4cm, 세로: 23.4cm

과거시험 과정 중 최종 구술시험의 문제와 결과를 보여주는 시험지다. 구술시험은 알실, 복록은 시험지가 때문에 시험지가 남아 있는 경우도 드물다. 시험 과목이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과거시험에서 구술 시험도 있다는 사실 조차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시험은 물론 유교를 시험하는 도구이다. 의학, 천문학, 철학 등을 시험하는 것과는 달리 시험에서도 꼭 지켜야만 하는 시험이었다. 이 시험지는 구술시험 중에서도 3년에 한 번 행한 식년사(문과)가 아닌 무과 시험(과시)이 한 번씩 단행(조선)이어서 처음 평가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불어간은 주로 유교 경전 7개에서 각각 구절을 뽑아 보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시험이다. '맹의 시험'은 이를 '복록', '복록', '복록' 등을 4년째 평가했으며 '과시'상을 받아 복록만 과거시험에 낙방했다. 3월에 행어었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시험의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구술시험이 중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험지에는 각 장마다 제목이 도장으로 찍혀 있고 그 아래 문에 시험 날짜, 시험관이 서명이 되어 있다. 이 시험지가 남아 있는 모두 가장 높은 '알실'을 받았다. 시험지라 하면에는 집현처에 보관하는 등의 근방에 보관이 남아 있다. 집현처에 보관이 되는 이유, 나이, 품급, 자비기 등을 통해 인사정보를 기록한 것이므로 죽어 버리고 시험을 볼 때는 일일 내린 관아문으로 무어한 자료(자료)를 무성행위를 할 수 있게 그 존재이다. 이 시험지의 경우 단행(문과) 시험 과목이 조선(대)정확한 용어는 알 수 없지만, 다른 흔적을 바탕으로 구술시험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조선(대)정확한 노력을 할 수 있다. 구술 시험을 평가해 인재를 추천했던 시험이 담긴 강서 시권을 통해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새로운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This is a graded oral paper from the oral portion of a state examination. It was part of an oral exam testing candidates on the seven major Confucian classics. Featuring traces that show few candidates were evaluated on their oral skills in addition to writing when taking talented individuals, this document illustrates a little-known aspect of the state examinations of the Joseon Dynasty.

4. 붉은 도장을 찍어 보관된 흔적

4. 홍주지(문과) 시험지 보관 흔적

본인 자료를 보거나 사진 찍기 어려운 유물인 만큼,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gangseo.or.kr/gangseogangseo

국립고궁박물관

10월 큐레이터 추천 유물 홍보물